

‘행복의 길’ 출가를 이야기하다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스님에게 직접 묻고 나아가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스님)은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부산 부경대 대회의실에서 ‘행복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출가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출가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민 멘토’ 범윤스님이 출가와 삶에 대한 고민을 풀어준다. 또한 불자가수 아웃사이더가 공연뿐 아니라 패널로 나서 생활고민에 대한 조언 등으로 대담에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그간 교육원은 2030세대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젊고 유능한 출가자 확보를 위

교육원, 26일 부경대 출가콘서트

범윤스님이 ‘삶의 고민’ 풀어주고 불자가수 아웃사이더, 공연 이어 패널로 나서 함께 대담도 이끌어

해 출가학교, 출가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왔다. 출가와 스님, 승가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취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삶의 선택지로서 출가를 제시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다.

교육원 연수국장 석종스님은 “기존의 출가는 사회와 단절되어 혼자만의 수행을 이

어가는 것이라는 무거운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불도(佛都) 부산에 출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출가만의 문제가 아닌 인생에 불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출가콘서트 외에도 상담부스를 따로 운영하여 즉문즉설에서 풀지 못했던 궁금증이나 개인적인 고민상담도 도와줄 예정이다. 출가콘서트는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이다. 출가사이트(monk.buddhism.or.kr)에서 즉문즉설 질문지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부산지사=송정은 기자 je.song@ibulgyo.com
유진상 부산지사장 kbulgyo@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 초청으로 지난 8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한 장 병상 플라세 프랑스 국무장관(사진 왼쪽)이 한국의 사찰음식에 대해 극찬하며 2018년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 사찰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플라세 佛국무장관 사찰음식에 ‘흠뻑’

총무원장 자승스님 초청으로 진관사 방문

장 병상 플라세 프랑스 국무장관과 파비앙 페는 주한 프랑스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초청으로 지난 8일 서울 진관사를 찾았다. 페는 프랑스 대사는 함께 가진 만찬 자리에서 한국의 사찰음식에 대해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이라며 극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건강”이라며 직접 사찰음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플라세 장관의 이날 방문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0월 프랑스 방문 당시 면담에서 초청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이뤄졌다. 총무부장 지현스님, 기획실장 해일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효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

계자 등이 배석했다.

플라세 장관은 진관사를 참배한 후 “사찰에서의 기도가 웬지 이뤄질 것 같다”며 “정치를 하다보면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멋진 저녁식사를 대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프랑스 대선 때문에 안 되겠지만, 2018년 가족들과 함께 한국 사찰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다음에는 조계사에서 대접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주한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의 진관사 템플스테이 초청, 페는 대사 부부의 2017년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초청 등을 약속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5년내 국내 10위, 세계대학 300위 달성”

동국대 개교110주년 후원의밤
조계종 50억원 후원 약정 등
스님, 동문 발전기금 후원담지

올해로 개교 110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보광스님)가 ‘브랜드 뉴(Brand New) 동국’ 캠페인을 시작, 2020년까지 국내 대학 10위, 세계 대학 300위를 달성하겠다고 서원했다. 동국대는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엠베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개교 110주년 후원의 밤’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랜드 뉴 동국’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캠페인이다. 학교는 오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1100억원을 모연해 스마트 세대를 위한 캠퍼스 재창조 △세계 수준의 융복합교육 연구기관 마련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달성하겠다는 단계계획을 수립했다. 캠퍼스 내 건물신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요 불사다. 제일병원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구역에 로터스관을 새롭게 세워 기숙사 및 연구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화문 방항에 들어설 건학108주년 기념관에는 박물관, 컨벤션센터, 국제선센터, 총동창회 등이 들어선다. 또 장총리틀아구장을 매입해 대학 정문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교원 초빙과 장학제도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새로 도약하는 동국대를 위해 이날 조계종을 비롯해 각지에서 학교발전기금이 담지했다. 영상을 통해 동국대 개교 110주년을 축하한 조계종 진제 총정예하는 금일봉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부장 지현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법인 학교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을 화합해 학교발전에 매진하길 기대한다. 종단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5년간 50억원 후원을 약속했다.



개교 110주년을 맞이한 동국대 발전을 위한 종단, 스님들과 동문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연극학부 동문들이 10억원을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스님들 모임인 석림동문회(회장 성우스님)도 10억원을, 연극학부 동문들도 10억원을 후원했다. 입적한 정수사 주지 지인스님이 교육환경개선기금 5억원을 쾌척했으며, 전영화 총동창회장도 3억원을 전달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조실 월주스님, 동국대 이사 성타스님, 성우스님,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보광스님도 1억원을 후원하는 등 이날 하루 250여명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했다.

총장 보광스님은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1100억 원을 모연해 학교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스님도 금일봉 5000만 원을 전달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스님과 동문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여현경 기자 eonardo@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11월9일 종무회의)					
	순형스님 평택 명법사	경호스님 경주 길상사	동옥스님 논산 월은사	정정스님 합천 감로사	대륜스님 광양 삼광사

종무원 223명 ‘朴대통령 퇴진’ 시국성명

“한정유린, 국정농단, 총체적 비리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및 부설기관 재가종무원 223명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종무원들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통해 국정농단을 방관하고 국민을 기만한 새누리당의 해체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성역 없는 명백한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또 국정교과서 추진,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모든 국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종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한정유린 국정농단을 바라보며 온 국민은 분노와 도탄에 빠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 답회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무시한 채, 변명과 동정심으로 상황을 무마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총리의 임명조차 독단하는 모습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며, 현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다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종무원들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사사로운 인연에 의지해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대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면 국민 외침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제자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에 따라 구국의 보살행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선언했다.

조계종 종무원 223명은 “11월5일 30만명이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재 위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재가불자 또한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귀의삼보 하옵고,

수행과 대중포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씁 없이 정진하고 계시는 해인동문 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21일(월) 오후 1시 제12교구본사 해인사에서 불기2560(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종무다방 하시더라도 모든 선후배 스님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

일 시 _ 불기2560(2016)년 11월 21일(월) 오후 1시
장 소 _ 해인사 관음전

상임위원회

일 시 _ 불기2560(2016)년 11월 21일(월) 오후 12시 30분
장 소 _ 해인사 청화당

※각 기 회장 스님과 제18대 상임위원 스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0(2016)년 11월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 명
(재)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보 광